DAY 36–45 · 4부 조심할 것

4부 총정리 — 조심할 것

내 정보 지키기부터 AI의 법까지 · 짧게, 비유로 · DAY 36-45

factnotes

시험 없음 — 읽고 넘어가는 복습 자료

넣는 순간 내 손을 떠난다

1. AI에 넣은 말은 넣는 순간 내 손을 떠난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해.

2. 이름·주소·전화번호처럼 **나를 콕 집어낼 것**만 빼면 답은 똑같이 나와.

3. 친구 얼굴이나 친구 번호는 내가 올릴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.

'베꼈다'는 말에 칸이 하나 늘었다

1. 예전에는 '베꼈다'를 결과물이 얼마나 닮았는지로만 따졌어.

2. 이제는 **만들기 전에 무엇으로 배웠나**까지 쟁점이 돼.

3. 나라마다 답이 다르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, 외울 게 아니라 쟁점을 알아 둬야 해.

눈으로는 못 가린다 — 출처로 가린다

1. 눈으로 봐서는 못 가려 — 손가락 개수를 세라던 옛 요령은 거의 안 통해.

2. 화면 속을 뜯어보는 대신 **어디서 왔는지**를 따라가.

3.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나, 다른 사람이 찍은 것도 있나를 보면 돼.

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 있는 것

1. AI는 마음먹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.

2. 배운 자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**답도 그쪽으로 기울** 뿐이야.

3. 그러니 사람을 나누거나 고르는 질문엔 '다른 경우는?'을 한 번 더 붙여.

밝히는 한 줄은 내 몫을 지키는 울타리

1. AI를 썼다고 밝히는 건 자수가 아니라 이름표야.

2. 안 밝히면 **내가 잘한 부분까지** 같이 의심받거든.

3. 과제를 조각으로 쪼개고, 조각마다 누가 했는지 한 줄만 적으면 끝이야.

끝났을 때 내 머리에 뭐가 남았나

1. 기준은 긴 규칙집이 아니라 한 문장이야 — 끝났을 때 내 머리에 뭔가 남았나.

2. 통째로 시키면 **결과물만 남고** 나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.

3. 막힌 데만 물어보고 내가 다시 쓰면 결과물도 남고 실력도 남아.

가려내는 건 눈썰미가 아니라 순서

1.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건 눈썰미가 아니라 순서야.

2. 누가 처음 말했나, 언제 일인가, 다른 곳에도 있나 — **이 셋만** 차례로 봐.

3.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거기서 멈추면 돼. 멈추는 것도 판단이야.

끊고, 내가 아는 번호로 내가 다시 건다

1. AI를 쓴 사기는 늘 같은 순서야 — 흉내 내고, 아는 척하고, 급하게 몰아치고, 요구해.

2. 막는 법은 싱거울 만큼 간단해 — **일단 끊고, 내가 아는 번호로 내가 다시 걸기**.

3. 진짜 가족이면 다시 걸어도 아무 일 안 생겨.

맡기는 비율을 내가 정하고 있나

1.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— 맡기는 비율을 내가 정하고 있느냐가 전부야.

2. 0도 100도 아니고, **남는 게 제일 많은 자리는 가운데**야.

3. 먼저 5분은 내 머리로 해 보고, 그다음에 맡기면 돼.

위험한 정도에 따라 칸을 나눈다

1. AI에도 법이 있어. 그런데 모든 AI를 똑같이 다루지는 않아.

2. 쓰임이 **위험한 정도에 따라 칸을 나눠** 규칙을 다르게 걸어.

3. 우리나라 AI 기본법도 2026년 1월에 시행됐어.

조심할 것은 겁낼 목록이 아니라,
내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순서야.



5부에서는 안을 들여다본다.